

세상을 뒤흔드는 프로젝트들

세상의 변화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으며 연대하는 시민으로서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의 행동은 지구의 변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 당장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주도적 움직임에는 뭐가 있을까?

콜리브리 운동

피에르 라비의 주도하에 2007년 창설된 콜리브리(colibris, 벌새) 운동은 현재* 20개 지부 7만 명의 회원이 새로운 사회 프로젝트

* 2013년.

에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의 3대 주요 지침을 소개한다.

www.colibris-lemouvement.org

영감 콜리브리 운동은 미래의 길을 비춘다는 취지에서 악트 쉬드(Actes Sud) 출판사에서 '도멘 뒤 포시블(Domaine du Possible, 가능한 것의 영역)' 총서를 내놓는 한편 에코 리브리스(Eko Libris)와 함께 대중잡지 《개선, 한 발짝씩 세상을 바꾸다(Kaizen, changer le monde pas à pas)》를 펴내고 있다.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자극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첫 번째 캠페인도 조직한 바 있다.

연결 콜리브리 운동은 시민, 기업가, 국민의 대표 들을 한데 모으는 현장 활동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창조적 모임들에서 사람들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각자 자신의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공동 행동을 모색한다.

지지 콜리브리 운동은 농업, 에너지, 주거,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콜리브리는 피에르 라비가 주창하는 가치관 전반을 공유하며 대지와 인간(Terre & Humanisme), 숲마을(Hameau du Buis), 어린 이 농장학교, 레자마냉(Les Amanins), 벌새학교, 모든 곳에 오아시스, 피에르 라비 재단과 공조한다.

각 기구는 자율적으로 그 전문 영역에 맞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창발을 촉진하고 행동의 정치로 새로운 사회 모델들을 구현한다는 공통의 소명에 부응한다.

1. 다른 방식의 섭식

다른 방식의 섭식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날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인가?

우리가 먹거리를 구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재고해볼 만하다. 먹거리의 유통 과정을 축소하고, 유기농 제품을 먹고,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고, 텃밭을 기르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다.

대지와 인간(Terre & Humanisme PESI)* 1994년에 '피에르와 라비의 친구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대지와 인간은 자연환경과 인간 조건의 개선을 피하는 윤리적·실천적 방식으로 생태 농업을 전수한다. 자율적이고 안전하며 건강한 섭식을 도모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삼을 뿐 아니라, 의식화 운동과 교육을 통해서 식량 자원의 보호와 회복을 촉구한다.

www.terre-humanisme.org

* Pratiques écologiques et Solidarité Internationale, 생태론적 실천과 국제적 연대.

레지마냥 생태 농업 센터(Centre agroécologique Les Amanins) 레지마냥은 생태론적 시간을 적용한 농업 생산지이자 생태론적 지식을 접하고 나눌 수 있는 센터이다. 2003년에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와 기업가 미셸 발랑탱(Michel Valentin)이 손을 잡고 만든 이 센터에 서는 섭식, 교육, 농업 구성, 폐기물 관리, 개인들 간의 공조 체제에 대한 다각도의 실험들이 이루어진다.

www.lesamanins.com

솔랑 수도원(Monastère de Solan) 피에르 라비는 이 수도원이 생태 농업을 채택하도록 힘썼다. 덕분에 수녀들은 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땅을 일구었고, 솔랑 수도원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다.

www.monasteredesolan.com

프랑스 유기농업개발진흥사무소 www.agencebio.org

프랑스 유기농소비자재단(FE) www.bioconsommateurs.org

유기농 제품 선택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믿을 수 있는 직거래, 생산자들끼리의 물물교환을 장려한다.

프랑스 유기농업전국연맹 유기 농업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1978년에 설립되었다. 프랑스에서 유기 농업 생산자들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로서는 유일하다.

www.fnab.org

녹색 지성(Intelligence Verte) 1999년에 필리프 데브로스(Philippe Desbrosses)와 장 이브 프로모노(Jean-Yves Fromonot)가 설립한 이 단체는 잊힌 생물 종들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자연이 어떻게 인간의 사생활과 직업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가르쳐준다.

www.intelligenceverte.org

성 마르타 농장(Ferme de Sainte Marthe) 앙주에 소재한 이 농장은 대체로 유기농법에 입각하여 꽃과 채소의 다양성을 보존해왔고 최초의 씨앗과 모종을 나누어주는 묘상(苗床) 역할도 한다.

www.fermedesaintemarthe.com

ACAP 연합 농약을 대체할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는 시민들의 연합.

www.collectif-acap.fr

코코펠리(Kokopelli) 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

www.kokopelli-semences.fr

코카뉴 네트워크(Réseau Cocagne) 레 자르탱 드 코카뉴(Les Jardins de Cocagne)는 유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편입을 돕고 있다. 유기농산물을 매주 꾸러미로 배송해주는 형태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줌으로써 유기농 생산자들이 판매 할로를 찾게끔 도와준다.

게릴라 가드닝(Guerilla Gardening) '총 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는 취지로 도시의 버려진 자투리 땅에 식물을 심는 운동.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지부는 없지만 개인과 동아리,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원 취지와는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 도시녹화사업이나 부산시 골목길 가드닝 운동과 같은 관 주도의 사업과 연계해 이뤄지기도 한다. 게릴라 가드닝의 창시자 리처드 레이놀즈가 2012년 8월에 내한하여 TED xItaewon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한국의 게릴라 가드닝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간 바가 있다.

guerrillagardening.org

디스코수프(Disko Soupe) 독일에서 슈니펠 디스코(Schnippel Disco)로 시작된 행사를 프랑스로 옮겨온 것. 먹을 수 있는 데도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상품이 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과일과 채소 등을 한데 모아 음악을 즐기면서 함께 요리하고 함

게 나누어먹는다. 참가비는 무료이거나 참가자의 지위에 맡긴다. 쓰레기가 되기 십상인 음식물을 함께 맛있게 나누니 좋고, 신나는 분위기는 덤이다.

www.discosoupe.org

한국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과 친환경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들

농부로부터 www.fromfarmers.co.kr

두레생협연합 dure-coop.or.kr

무공이네농장 www.mugonghae.com

iCOOP 생협연합회 www.icoop.or.kr

올가 www.orga.co.kr

이팜 www.efarm.co.kr

초록마을 www.choroc.com

한살림 www.hansalim.co.kr

행복중심생협 www.happycoop.or.kr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푸드마일리지)를 줄여주는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로컬푸드 전북 localfoodjb.com

샷갓유통 www.sgmarket.kr

참거래농민장터 www.farmmate.com

청송로컬푸드 청송로컬푸드.kr

헬로네이처 www.hellonature.net

흙살림 www.heuksalim.com

재철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꾸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건강밥상 꾸러미 www.hilocalfood.com

늘봄농장 kimsfarm.kr

언니네 텃밭 www.sistersgarden.org

지리산의아침 꾸러미 www.gwgggu.com

기타 사업

전국푸드뱅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부 식품 제공 사업.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의 경우에도 1+1 제품이나 장기 보관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다.

www.foodbank1377.org

나눔푸드 관악주민연대에서 지역의 식당이나 떡집으로부터 남은 음식을 받아와 임대아파트의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에 배

급해주는 사업.

2. 다른 방식의 주거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70퍼센트가 도시민이 될 것이다. 이러 한 도시 생활에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이산화탄소 배 출량의 80퍼센트는 도시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공해 문제가 대두 된다. 둘째, 전 세계 에너지의 75퍼센트가 도시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 에너지자원 고갈 문제가 대두된다. 셋째, 공간과 함께 산 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그네들의 주 거 방식을 재고하고 있다. 공동주거, 캥거루주택, 에코카르티에 (친환경지구), 주거협동조합 등이 그러한 고민에서 나왔다. '셰어하우스'는 현재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빠르게 확산 중 이다.

슐마을(Le Hameau des Buis) 슐마을은 3세에서 82세까지의 주민 50여 명이 함께 지내는 삶의 터전이다. 마을에는 학교, 농장, 과수 원, 온실, 텃밭을 중심으로 생활기상학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옥이 20여 채 마련되어 있다.

hdb@la-ferme-des-enfants.com

주거협동조합(Habicoop) 주거협동조합 프로젝트는 거주자들의 공조 개발과 육성을 돕는다.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주거는 마음만 먹 는다고 똑딱 꾸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한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파트너를 찾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www.habicoop.fr

생태마을네트워크 생태마을, 일명 '에코빌리지' 네트워크는 세계 각 지에 자리한 생태마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 적이고 연대하는 삶의 방식들을 진작하고 있다. 국내에는 충북 보은을 중심으로 고흥, 영암, 충주에 자리한 선애빌(cafe.naver.com/seonaeville)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생태마을 이랑(cafe.naver.com/wooriecovillage)가 있다.

gen.ecovillage.org

트랜지션 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 영국에서 롬-홉킨스가 2006년에 창설한 트랜지션 네트워크는 전 세계 20여 국가, 200여 도시와 마을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도시와 마을이 소통하 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 측구 운동을 장려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이고 집단적인 접근법을 제안한다.

www.transitionnetwork.org

한국에서는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삭막해져가는 도시 공간에서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 공동체와 공유 주택들이 생겨나고 있다.

2015년에는 사회주택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주택 협회가 출범했는데, 여기에는 협동조합주택이나 공유주택과 같은 대안적 주거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기업들과 경제 단체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사회 주택의 공급·관리뿐 아니라 기존의 주거지를 재생하거나 마을 커뮤니티를 기꾸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공가 세어하우스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주)두꺼비하우징에서 제공하는 공유주택.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방 개수가 많은 기존의 중·대형 주택들에 공실이 생기는 데서 착안. 중·대형 주택의 방들을 각각 1인 가구에 임대하여 마을에도 생기를 불어넣는다.

www.gongga.kr

구름정원사립들 은평구에 자리한 국내 첫 협동조합주택. 은퇴를 앞둔 8개 가정이 모여 구름정원사람들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한 것이다. 1층에 임대한 상가의 수익은 조합원들끼리 나누는 형태.

동네목수 성북구에 자리한 건축 인테리어 전문 기업으로, 노후 주택의 개·보수와 리모델링, 맞춤 가구 제작, 가계와 공공시설의 인테리어 등의 마을 재생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마을 기업이다.

www.facebook.com/동네목수-648486725217795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층 간의 연대를 통해 비영리 주거 모델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여,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입자 네트워크의 구축, 대학 총학생회와 연계한 주거 복지 상담, 청년 주거 문제 연구와 정책 개선 제안, 사회 주택 제공 등이 있다. 산하의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는 공유주택인 '달팽이집'을 조성하여 조합원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minsnailunion.tistory.com

WOOZOO 영화 감상, 독서, 캠핑, 여행, 요리 등의 콘텐츠를 잡아 꾸민 공유주택에 집과 동거인들에게 알맞은 입주자를 꼼꼼히 선별해 임대한다. 각 콘셉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6년 2월 현재 서울 곳곳에 27개의 지점을 선보이고 있다.

www.woozoo.kr

www.trocdepresse.com

합계주택협동조합 성산동에 위치한 주택협동조합. 2014년에 1호 점이 완성되어 입주자를 받았으며 2016년 2월 현재 2호점이 준비 중이다. 1인 기구를 대상으로 공동 거주를 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며, 협동조합인 만큼 한 달에 한 번 입주자 회의를 하여 공과금을 산정하고 분담한다.

cafe.daum.net/housingco-op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공동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아파트를 개조하여 기숙사 형식으로 임대한다.

www.facebook.com/knbauiface

3. 다른 방식의 정보 전달

《개선(Kaizen)》 다른 21세기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시도들을 소개하는 클리브리 운동의 자매지. 187쪽 참조.

www.kaizen-magazine.com

트록 드 프레스(Troc de presse) 언론 소비자들의 참여로 평소 자신이 구독하지 않은 언론 정보를 접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사이트.

《21세기(XXI)》 2008년 1월에 창간된 잡지로, 광고를 전혀 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www.revue21.fr

《르포르테르(Rapporteur)》 1989년에 창간된 생태주의 잡지.

한국에서는

《녹색평론》 1991년에 창간된 격월간지로, 생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치로 창간되었다. 출판사의 광고만 실는다.

《실력이야기》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에서 발간하는 생활문화 잡지. 2008년에 계간지로 창간하여 2014년 6월부터 월간으로 전환해 발행되고 있다. 생태, 환경, 대안적 삶, 농촌, 건강한 밥상 등의 생활 문화를 다루고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1996년에 녹색연합에서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환경문화 일간지. 재생 종이를 사용하며, 고운 우 리말을 살려 쓰려 노력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1984년 창립. 해직 언론인과 진보적 출판인이 중심이 되어,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언론 민주화 를 피하는 언론 운동 전문 단체. 《한겨레》 창간을 주도했으며, 다양한 방면의 시민 언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여론 다양성과 언론 공공성을 위해 언론 감시 운동을 벌이며, 매달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하고 국내에서 주목받는 이슈에 관한 각 언론사의 보도를 모니터링한 자료를 제공한다.

www.ccdm.or.kr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시주의 이익에 따른 불공정 편파 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협동조합 형식으로 설립된 대안 방송사. 국민 이 주인이 되는 언론사를 표방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TV, 라디오, 팟캐스트 등을 서비스한다.

kukmin.tv

각종 언론협동조합

각 지역을 중심으로 광고비에 의존하지 않고 조합비와 구독 료 위주로 운영하며 상주 기자 외에도 시민 기자들의 기사도

기고받는 등, 협동조합 형태의 풀뿌리 언론이 속속 등장하 고 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의 개 미뉴스(www.antnews.co.kr),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광주필진의 이젠시민시대(siminsidae.com), 피산언론협동조 합의 느티나무통신(gsnews.or.kr), 순천언론조합의 순천광장 신문(www.agoraneews.kr), 영암언론협동조합의 영암우리신문 (www.wooriy.com),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뉴스풀협동조 합의 뉴스풀(www.newspool.kr), 거창언론협동조합의 한들신문(newshd.kr) 등이 있다.

4. 다른 방식의 교육

교육의 윤리적 쟁점들은 사회 변화의 근간을 이룬다. 우리의 교 육관을 되돌아보고 아이들에게 마땅한 존중을 가르치는 시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아이들은 이 땅에서 생명체들과 더불어 자아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가치들을 습득해야만 한다.

숲마을 어린이농장학교(La ferme des enfants) 프랑스 아르데슈 지역 생태 마을 '숲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은 몬테소리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자율성과 호의를 배운다.

www.la-ferme-des-enfants.com

레자마닝 벌새학교(L'école du Colibri aux Amanins) 이 학교도 숲마을 어린 이농장학교와 마찬가지로 피에르 라비의 이념을 따른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 대신에 “지구에서 어떤 아이들이 살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 학교 아이들은 일반적인 교과 수업 외에도 정원 일, 동물 기르기, 세로운에 너지 사용하기, 재활용 등을 배운다.

www.lesamanins.com

라 리빙 스쿨(La Living School) 파리에 소재한 학교로, 몸으로 배우는 삶,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 정신, 함께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

www.livingschool.com

교육의 봄(Le Printemps de l'éducation) 일선 교사, 교육자, 부모, 아이, 각 단체 대표, 기업 등이 학제를 뛰어넘는 통합적 교육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운동.

www.printemps-education.org

그랜데콜(Graine d'école) 성인(교사, 부모) 대상으로 '미래의 온전하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 아이를 키우는 법'에 대해서 각종 연수, 강연, 교육을 실시한다.

grainedecole@sfr.fr

세상의 학교들(École du monde) 전 세계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비교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연구 프로젝트.

www.ecolesdumonde.com

어린이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

현재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아이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가르치는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www.mindfulnessschools.org

www.mindfulnessinschools.org

www.academyformindfulteaching.fr

한국에서는

여러 대안학교들이 각자의 교육관에 따라 다른 방식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대안학교는 크게 인가형과 비인가형의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교육부로부터 학력을 인정받는 인가형으로는 교육 방식에서 차이를 두는 정규 학교인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와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학교로 구분되는 대안학교가 있다. 2015년 5월 교육부 고시 기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는 38개 교(공립 7교, 사립 31교)가 있으며 대

안학교로는 24개 교(공립 6교, 사립 18교)가 있다. * 215~216쪽 참고

제도권 밖에서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이뤄지는 비인가형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이 되지 않지만 인가형과는 달리 다양한 양태로 실험적인 방식의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비인가형 대안학교로는 꿈꾸는아이들의학교, 도시속작은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성미산학교, 성장학교 별, 은평씨앗학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공유주택이나 생활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핵가족화된 현대 가정이 보듬을 수 없는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의 칙칙푹푹어린이집, 성미산마을의 성미산어린이집 등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5. 다른 방식의 소비: 돈과의 관계를 달리하다

에티크 슈트 에티케트 (Étique sur l'étiquette)* 1995년에 창설된 이 연합은 국제적인 연대 조직, 노조, 소비자 운동, 대중 교육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사회적 특질을 알 권리를 인식시키는 활동을 한다.

www.etique-sur-etiquette.org

* 번역하면 '제품 표시에 대한 윤리학'

아샷트(achact)* 아샷트는 여성 노동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노동 조건 개선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친다. 소비자와 노동자인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야만 기업과 공권력이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지 않을 것이다.

www.achact.be

셀리데르(SEL'IDAIRE) 프랑스 내 지역 교환 거래 체계(SEL, systèmes d'échange locaux)에 대한 정보를 주고 활성화하는 기구.

www.selidaire.org

도농(donnons.org)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피하기 위해 무료 나눔이나 쓰지 않는 물건의 수거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사이트,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에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www.donnons.org

레 페티 리앙(Les Petits Riens) 현재 어엿한 사회적 기업이 된 레 페티 리앙은 수거한 물품들을 재분배하거나 재판매한다. 수익은 빈곤

* Actions Consommateurs Travailleurs, 소비자 노동자 정의 활동.

과 배척을 추방하는 사회 활동 지원에 쓰인다.

www.petitsriens.be

엠마우스회(Emmaüs) 1949년에 시작된 엠마우스회 운동은 현재 36개국 306개 지부로 확산되어 빈곤과 배척을 몰아내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창립자 아베 피에르(Abbé Pierre)는 이 운동의 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고 줄 것도 없으나, 당신은 내가 다른 이들을 돕게끔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시장들(Les Marchés Gratuits) 과소비를 거부하던 어느 아르헨티나 젊은이가 남는 물건을 나누어 쓰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음으로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처음 시작된 무료 시장은 이제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차 이러한 무료 시장들이 체계를 갖추고 네트워크를 이루는 때가 오리라 예상된다.

www.greenetvert.fr/2012/06/01/les-marches-gratuits

소비를 통한 변화(Les Changement par la consommation) 천연자원이 한정된 세상에서 인간생심 무제한 소비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페이지 �북 페이지는 이미 확인된 사실들에 기대어 이 문제를 재고하고 혼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나누고자 한다.

www.facebook.com/Le-changement-par-la-consummation-218263484852205

한국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함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을 확립해가기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다. 서울의 4개 지부를 비롯해 전국에 20개의 지부가 있다.

www.gcn.or.kr

이름다운기عة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우리 사회의 생태적 변화를 꾀한다. 일반 가정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의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상설 판매하며, 수익은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다. 전국에 매장이 있으며, 기존의 경우 매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증품 방문 수거를 신청하여 진행된 다. 폐품들을 재활용해 제작한 상품들이나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자활단체 등에서 만든 공익상품들도 함께 판매한다.

www.beautifulstore.org

이름다운커피 커피, 초콜릿, 견과류 등의 식품을 네팰, 인도네시아, 페루, 과테말라, 우간다 등의 커피 협동조합, 인도, 볼리비아 등지의 협동조합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직접 거래하여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직영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2007년에 시민 단체들과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된 사회적기업. 의류,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국내 사회적기업이나 제3세계 국가 공방과 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한다.

www.fairtradegru.com

한국공정무역연합(KFTA) 공정무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된 단체. 세계공정무역기구 아시아지부의 회원 단체로, 공정무역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며 다른 국제 단체나 생산자들과 연대한다. 국내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 캠페인 실시, 관련 도서 발간, 청소년 대상 교육 등을 펼친다.

fairtradekorea.net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2008년 국내 공정무역 단체들 간의 협력과 공정무역 운동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그 목록을 찾아볼 수 있다.

kfto.org

6. 봉사단체 활동과 NGO 활동

한국에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VMS) www.vms.or.kr

각각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시스템이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후 원하는 지역이나 분야에 따라 봉사활동을 신청하거나 본인의 기호에 따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이후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두 사이트 간의 봉사 기록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 VMS쪽이 봉사자의 인증이나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선보이며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봉사활동을 추천한다.

Dovol(두볼)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봉사활동 정보를 검색·신청하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시스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dovol.youth.go.kr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2004년 창립된 사단법인으로, 남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단체. 후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연탄을 배달한다.

lovecoal.org

7.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활동

렛츠도잇(Let's do it) 에스토니아에서 시작된 운동.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는 이 운동에는 현재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www.letsdoitworld.org

환경과 에너지 관리 기구 환경과 에너지 관리 기구는 일상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설명과 조언을 제시한다. 다양한 실용적 지침들도 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ecocitoyens.ademe.fr

한국에서는

녹색연합 1994년 배달녹색연합으로 시작하여 1996년에 지금의 이름을 기졌다. 한반도의 생태축을 보전하는 운동들과 아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자연 생태계 보전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태잡지인 월간《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발간하고 다양한 생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을 살리는 먹거리와 녹색 생활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의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다.

www.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198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단체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기원하여 1993년에 전국의 8개 환경 단체가 통합하며 창립하였다. 난개발로 인한 하천과 습지, 산간 등의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핵 문제와 기후 변화에도 관심을 가진다.

kfem.or.kr

8. 다른 방식의 노동

프랑스 코프(Coop) 프랑스의 협동조합 코프(구 CFCA)는 1966년에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단일 직업 기구로 출범하여 프랑스와 유럽의 기업, 공권력, 미디어,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청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

www.coopdefrance.coop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발상은 1960년대에 환경단체와 인도주의적 단체 들의 추진하에 등장했다. 이러한 발상은 기업, 제도, 단체 들의 활동 영역에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관심들이 증척되는 관계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www.orse.org

연대경제 연대경제 운동은 연대, 공유, 상호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프로젝트에 걸맞게 경제를 재조직하고자 한다.

www.le-mes.org

한국에서는

친환경기업협의회 2001년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로 창립.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 환경 협약들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2개의 회원사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www.ef21.co.kr

클택시 2015년 7월에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택시.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일한다. 매일 내야

하는 시납금이 없고 발생한 이익은 정액 급여에 추가하여 나눠 갖기에 법인 택시를 몰 때보다 적은 운행 시간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9. 마음챙김 명상 입문

마음챙김 명상회 프랑스에서는 2009년에 설립.

www.association-mindfulness.org

에메르장스 협회 에메르장스 협회는 벨기에에서 마음챙김 명상 강의를 실시하며 자료 센터 역할도 하고 있다.

www.emergences.org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지역	학교명	구분	지역	학교명	구분
인천	지구초고등학교	사립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평동중학교	공립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전북	동화중학교	공립
	달구벌고등학교	사립		지평신중학교	사립
부산	산미고등학교	사립	전남	세인고등학교	사립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전남	지평신고등학교	사립
경기도	이우중학교	사립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중앙기독교중학교	사립	전남	성지순화중학교	사립
경기도	한겨레중학교	사립		웅정중학교	사립
	한신중학교	사립	전남	청람중학교	공립
경기도	대명고등학교	공립		영산성지고	사립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전남	한빛고등학교	사립
경기도	이우고등학교	사립		한울고등학교	공립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경남	강주화랑고등학교	사립
강원	팔팔중학교	사립		남해상주중학교	사립
	진인고등학교	사립	경남	간디고등학교	사립
충북	팔팔고등학교	사립		원경고등학교	사립
	한천고등학교	사립	충북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양양고등학교	사립		태봉고등학교	공립

대안학교(각종학교)

지역	학교명	구분	지역	학교명	구분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	사립/고등학교	경기	세마기독학교	사립/초·중·고 통합
	서울다솜학교	공립/고등학교		화요일이침예술평학교	사립/고등학교
인천	여명학교	사립/고등학교	충북	기묘로보학교	사립/초·중 통합
	지구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글로벌선진학교	사립/중·고 통합
인천	인천창당학교	사립/고등학교	충남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사립/고등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공립/초·중·고 통합	경북	여해학교	공립/중학교
대전	인천해림학교	공립/중·고 통합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사립/중·고 통합
	그라시아스음악학교	사립/고등학교	경남	내무외학교	사립/중학교
광주	월광기독학교	사립/초등학교		신자연학교	사립/중학교
	경기새마을학교	공립/중학교	경남	한울글로벌학교	사립/초·중·고 통합
경기	광성드림학교	사립/초·중 통합		꿈키움학교	공립/중학교
	새너제학교	사립/중·고 통합		어울림학교	사립/중학교

출처: 교육부 대안학교 현황(2015)

에메르장스 협회

L'Association Émergences

이 책의 인쇄 수입은 모두 에메르장스 협회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금으로 이용될 것이다. 에메르장스 협회는 브뤼셀에서 매년 열리는 에메르장스 대회 조직을 중심으로 한다. 에메르장스 대회는 선택된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현자들(철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등)이 토론을 나누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개념들을 공유하며,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모, 교사, 공조 관계의 실무자, 온 세상 시민들이 아름다운 이념들을 더불어 나누며, 모든 활동 수익은 벨기에와 해외 빈곤층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인다. 몇 년 전부터 에메르장스 협회는 마임챙김 명상 과정들을 비롯하여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선보이고 있다.

- 2009** 마임챙김 명상에 대한 학제 간 연구의 날[피에르 필리포[Pierre Philippot], 티에리 장센[Thierry Janssen], 마티외 리카르, 크리스토프 앙드레]
- 2010** 긍정심리학에 대한 학제 간 연구의 날[크리스토프 앙드레, 이자벨 필리오자[Isabelle Filiozat], 토마 당상부르[Thomas d'Ansembourg], 자크 르콩트[Jacques Lecomte], 마티외 리카르]
- 2010** 마임챙김 명상에 대한 학제 간 연구의 날[기도 봉돌피[Guido Bondolfi], 티에리 장센, 마티외 리카르, 크리스토프 앙드레]
- 2011** '자기를 돌보라, 남들을 돌보라' 학제 간 연구의 날[타니아 장어, 로제트 폴레티[Rosette Poletti], 리타 바셋[Lytta Basset],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 마티외 리카르, 크리스토프 앙드레]
- 2012** '나의 변화, 세상의 변화' 학제 간 행사[조 카빈진, 마티외 리카르, 크리스토프 앙드레, 피에르 라비, 에델 마엑스[Edel Maex]]
- 2013** '행복과 역경: 삶의 시련을 가치는 기쁨' 학제 간 행사[마티외 리카르, 크리스토프 앙드레, 안 도핀 쥘리앙[Anne - Dauphine Julliland], 마그다 올랑더 라프롱[Magda Hollander - Lafon], 미셸 라크루아[Michel Lacroix], 파트리스 구리에[Patrice Gourrier], 에델 마엑스, 티에르 안센]

에메르강스 협회는 다음 세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카루나 세첸 www.karuna-shechen.org

마티외 리카르가 2000년에 설립한 이 비영리단체는 지역 파트너와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인도, 네팔, 티베트의 빈곤 인구에게 교육시설, 보건시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동하는 연민(티베트어로 '카루나')을 이상으로 삼고 교육과 보건의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삼는 카루나 세첸은 각 마을의 문화 유산을 존중하면서 그곳의 특수한 사정과 열망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카루나 세첸은 아동 교육, 여성과 소년들의 자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카루나 세첸은 창립 이후로 인도, 네팔, 티베트에서 110개 이상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15년 동안의 실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진중한 협력자들을 선발, 교육하고 실력 있는 외국인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다.

네팔 포카라 대니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라트 라마의 이야

기를 들어보자.

나는 네팔 포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식구는 다섯 명인데 무척 가난합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입은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셨지만 아버지 벌이로는 우리 남매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로 형편이 너무 어렵거든요. 한번은 누가 나에게 꿈이 무엇이라고 물어보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꿈 같은 건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죽도 갈 수 있는 새 학교가 포카라에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생 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죠. 형, 누나, 나는 그 학교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사회운동가가 되어 교육 부문을 크게 개선하고 싶어졌습니다.

브뤼셀 사회긴급지원서비스 www.samusocial.be

브뤼셀 사회긴급지원서비스는 브뤼셀 노숙인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긴급 복지 지원 장치다. 노숙인들을 긴급 수용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을 요청할 상태가 아닌 노숙인들을 현장에서 찾아가는 인력들이 필요하다. 노숙인들에게는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곳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 그들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의료진, 그들이 장차 거리를

벗어나 자활할 수 있게 하는 사회심리학적 지원 또한 요구된다. 브뤼셀 사회긴급지원서비스는 이 모든 도움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2012년에는 7,309명에게 12만 7,379건의 숙박과 25만 4,500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 노숙인 7,017명이 현장 인력과 만나서 도움을 받았고, 사회심리학적 지원이 따르는 지속적 지도도 1,051건에 달했다.

필로멘은 네 아이의 어머니로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렸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안전상의 이유로 필로멘과 아이들을 긴급사회지원센터로 보냈다. 사회복지사들은 필로멘에게 변호사를 구해주었고 그 결과 필로멘은 당분간 별거 상태에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세 아이의 학교 문제, 막내딸의 어린이집 문제도 잘 해결되었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령이 떨어졌다. 필로멘은 센터에서 한 달을 보내고 공공사회지원 센터가 관리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현재 필로멘은 공공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 그녀와 아이들은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브라질 거리의 아이들

20년 전부터 브라질 북동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해온 '거리의 아이들'은 헤시페와 올린다 빈민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아이들이 거리의 아

브뤼셀사회 긴급 지원 서비스 현장 출동 인력 마로드는 노숙인이자립하고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이 되지 않도록, 온 나뻘게 마약 따위에 빠지지 않도록, 총에 맞아 죽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 편입하여 비판하고 투쟁할 줄 아는 시민의 한 사람이 되도록, 그로써 브라질이 과거에 늘 그랬듯이…… 다시금 모든 이에게 놀라운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포부는 역량 있는 브라질 현지 협력자들의 수고로 실현될 수 있다. 그들은 이 아이들이 작은 공동체들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의식을 계발하고 존엄성을 되찾아 장차 책임 있는 시민으로 자라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디에고는 이를 살이지만 학교에 못 간다. 기위로 선생님 팔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그저 디에고를 살짝 토닥거렸을 뿐이었는데, 애정 표현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는 선생님이 자기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이제 디에고는 애정 표현을 받아들이 줄도 알고 남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줄도 아는 아이가 되었다. 한 번만 더 아이를 학교에서 받아달라고 선생님을 잘 설득할 일만 남았다……

피에르 라비 기부 재단

피에르 라비 기부 재단은 2013년 4월에 생애 농업 기술 개발, 자출, 절제, 안전한 먹거리를 실현하는 생활 방식의 전파, 그리고 생애론적이고 교육학적인 삶, 세대 간 통합과 연대의 삶의 현장

을 만드는 '모든 곳에 오아시스' 운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로써 전 지구적인 페리다임이 인간과 자연을 우선으로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고자 한다. 피에르 라비가 초석을 놓은 여러 프로젝트들—팜 스망시에르(Femmes Semencières, 씨앗이 되는 여성들) 네트워킹, 국경 없는 생애농업인회, 모로코 생애농업 교육 센터—은 지금도 전개 중이다.